

<2014년 12월 15일 새벽정리요약말씀>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며 모두 모여들고, 우리 하늘의 사랑하는 자들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 또 되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할까?

첫 번째 새벽에 탁 일어나서 준비했을 때 말씀이 온 것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을 축구를 하게 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축구선수입니다. 왜냐하면 축구를 한 지가 거의 20년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축구를 20년을 했으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축구할 때마다 관중은 얼마나 많이 거쳐 왔습니까.

축구를 하게 한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몸을 건강케 하기 위해서! 또한 섭리의 모든 자들이 활발하게 뛰어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지도자들이 부지런해야 옆의 사람도 부지런합니다. 지도자가 더 먼저 일어나서 부지런히 뛰고 달려야 됩니다. 내가 운동을 해서 부지런하게 되고, 활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서 “섭리를 뛰는데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운동하며 볼(ball) 다루듯이 섭리를 다뤄 왔습니다. 그래서 볼 욕심이 많습니다. 볼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선수가 못 된다고 했습니다.

급해도, 뻗으려 와도 과감하게 파헤치고 달고 들어가서 골인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때 보면 그 팀 모임이 잘 이뤄져야 됩니다. 섭리사의 각 분야마다 교회면 교회, 중고 등부 기관은 기관의 팀 모임이 잘 이뤄져야 됩니다.

각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꼭 하십시오. 지금 교육입니다. 팀 모임을 잘 이뤄나가야 됩니다. 그 중에서 누가 조금 힘들다면 같이 보조를 맞추고, 나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나는 항상 어느 팀 모임이 되었든지 거기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나 없이 결정하고 하는 것은 뒤에 알면 여지없이 다 몽개버립니다.

나만 세워놓고 그냥 하지 말고, 나를 허수아비로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수아비는 세워놓기만 하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팀 모임에 꼭 나와 같이 의논해야 됩니다. 교역자들이 거기서 그럭저럭 의논하고 하고 그러니까 잘 안 되고, 보다 큰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내가 천리만리에 있으면 천리만리 있다고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육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영에 대한 기본을 알지요? 정신의 세계는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나는 정신계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 인봉을 뺏습니다. “몸뚱이보다 빠른 것이 있다. 정신이다.”

그리고 또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는데, 정신은 100바퀴도 더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개발하자. 이 정신의 세계를 개발하자.”

내가 여러분들을 꿰뚫어보는 데에 10초가 걸립니까, 2초가 걸립니까? 일순간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런 팀 모임이 있습니다. 양쪽의 라이트백 레프트백 둘이 한 팀이고, 골키퍼가 한 팀입니다. 골키퍼는 혼자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윙 레프트윙이 한 팀입니다. 그 팀 모임, 조 모임이 잘 이뤄져야

됩니다. 이와 같은 조직으로 여러분들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자기의 책임은 자기가 안 하면 안 됩니다.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 팀 모임들이 따로 놀지 말고 같이 뭉쳐서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안 되면 재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새벽에 온 사람은 다 지도자니까 그 팀 모임이 잘 이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전체가 기대에 어긋남 없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조직입니다. 조직을 잘 해야 조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조직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되십니다.

나도 혼자 안 하고 늘 우리 팀 모임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 선생님이 같이 팀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서 같이 영적인 세계에 의논하고, 또 선생님도 제자들이 있으면 옆에서 늘 의논합니다.

여러분들도 지도자들은 자꾸 의논하고 그래야 됩니다. 나도 그렇게 의논하는데, 저 밑에 있는 오리발 같은 사람들이 의논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아니면 못하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아니어도 한다.’는 것을 깨닫고 해야 됩니다. 어느 곳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순간 테크닉입니다. 볼 차는 것을 볼 때 그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볼과 인생, 축구와 인생, 그와 같이 그러하다!

그래서 물어보고 모두 결정하는 것입니다. 통하니까 물어봅니다. 전화기는 고장 날 때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은 고장이 안 납니다. 알겠습니까? 아주 약속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고장 나면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나한테 얘기해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든지, 무릎이 아프든지, 배고프고 창자가 마를지라도 끝까지 해서 하나님께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놓고 와서 큰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을 쓰고 연습하고, 악을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역사를 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같이 됩니까?” 알겠지요?

여러분은 센스 있게 채치 있게 볼달고 가는 사람과 같이 욕심 부리지 말고, 사람들에게 패스하고, 자기만 붙잡고 있지 말고 얼른 패스해야 됩니다. 왜 그런 이치를 모르고 가느냐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끼리도 그 사람과 감정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계속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가 해결 못 하는 것을 맡겨서 해결하게 만듭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무시하지 말고, 평소의 감정 갖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볼 때, 자기 앞에는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는 그가 잘하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법입니다. 이것이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선생님을 안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업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월등한 우선권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길 수 있는 우선권이 있는가 하니,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세상에 보냈으니까 나는 손가락만

까딱 해도 다른 사람이 몸뚱이 까딱하는 것보다 더 봐 줍니다. 그것이 우선권이 아닙니까.

사람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니,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보약을 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정신의 힘은 한계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밀어붙이면서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뛰고 달리고 열심을 더 감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정신의 힘이 들어가고, 정신의 능력과 권능이 들어가며,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옛날 1999년도 환난기 때 ‘아무래도 우리 역사가 무너나겠다.’ 하고서 걱정들 하면서 안 뚝 떨어진 애들이 모두 나가버렸습니다. 환난기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보니까 일단 무너졌습니다. 어느 정도 무너졌지만, 다시금 새로 짓는 것을 봤습니다. 이는 마치 월명동에서 돌 조경을 쌓을 때 무너지듯이 무너졌습니다. 또 쌓고 또 쌓고 했더니 결국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월명동 돌조경이 결국 세워지듯이, 우리가 무너졌을 때 더 이상적으로 된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앞의 사람이 나가니까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하고 또 전도했습니다. 더 좋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또 전도했습니다. 마지막 왔을 때는 더 멋진 사람이 왔습니다. 영웅 같은 자가 왔고, 선녀 같은 자가 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시는 것을 깨닫고 끝끝내 계속 월명동 돌조경이 넘어지면 또 선생님이 쌓듯이 그런 기질을 갖고 연속적으로 하게 해 주시옵소서.

첫 번째 불 달고 가다가 뺏겼으면 두 번째는 악을 먹고 가서 기어코 넣고 오는 그런 기세를 벌이듯이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들이 가는 곳에 기적이 있다. 하나님이 같이 가니까. 왜 조바조바 하고, 왜 홀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말 못하는 자는 내가 보낸 자처럼 말하게 해 주시고, 말의 능력이 나가게 해 주시고, 말의 권능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춤을 추는 자, 노래하는 자도 능력이 나가고 은혜가 나가서 불길을 스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뛰고 달리는 자에게 모두 능력과 권능이 충만할지어다.

아픈 자가 있습니까? 건강케 해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든 자, 그리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돈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돈을 넣어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제의 풍부함을 주시옵소서.

잘 곳이 있습니까? 잘 곳을 주시고, 뛰고 달리게 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처지를 더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과 온 지구촌에 있는 나라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환난이 있습니까? 환난 날에 환난을 더욱 힘 있게 꺾어나가게 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사명을 맡은 자들이 너무 위세를 부린다는 보고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사명 맡은 자들이 너무 강하게 사람들에게 주권을 부린다고 자꾸 편지로 들어오는데, 이들이 그렇게 되면 갈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간다고 빨리 고치라고 했습니다.

“모두 고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이 간다. 왜 사명을 맡고 주권을 부리느냐? 그러면 안 된다.”

주의 인자와 사랑을 주시고 지혜를 주사 판단하고 부지런히 고치고 행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일일이 다 편지를 쓸 수 없다. 지금 말씀으로 선포했으니 안 고치면 바로 네 직임이 갈려진다.” 했습니다.

의와 사랑과 공의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이들에게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 말씀 마쳤습니다. 열심히 하고, 뛰고 달리고 잘해서 하나로 팀웍 되어서 하라고 했지요? 안녕!